

대한건축사협회 제32·33대-제34대 회장 이·취임식

"건축사 경제 안정에 역량 집중...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조속 실현"



취임선서에 나선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조속히 실현시키겠습니다.”
향후 3년간 대한건축사협회를 이끌어갈 김재록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건축사 회원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건

축사협회 제32·33대-제34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재록 회장은 “회장 취임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며, 앞으로 건축사협회는 회원 1만 8천명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록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로서 밝힌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김재록 회장 취임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위한 건축사업무 지원시스템 마련
정당한 건축생태계 조성 위해 건축사 업역 확대 필요 강조
합리적이고 현실적 내용으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회원 복지·노후보장 위한 업무실적 신고제도와 연금제도 도입할 것”

다는 약속을 재천명하며,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가공인 건축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상은 높일 것”이라며 “이에 앞서 회원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의 조속한 실현을 34대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법제 대응 기능 강화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김재록 회장은 “협회 내 대변인직을 신설하고 싱크 탱크인 건축연구원 기능을 확대하여 정체되고, 정부 및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어떠한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건축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비전도 소개했다. 김재록 회장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업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립과 건축사의 업역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나아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사 수급 조절, 건축사보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설계공모 공정성 확립, 건축사 인력난 문제도 해결할 것”

이어 “설계·감리비 덩핑,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업무 지원시스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첨단 전문교육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 건축사 회원들의 노후를 대비한 정책도 공개됐다. 이를 위해 김재록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와 노후대책을 위한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와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건축사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2면 계속

‘월간 건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월간 건축사지 2024년도 3월호 표지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전문매거진 ‘월간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종교시 부문 ‘2024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됐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잡지를 선정한다는 취지다. 매년 학계,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한다. 시사·경제·교양,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과학·기술 등 총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잡지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 소외 지역과 재외문화원, 해외 도서관 등에 보급된다.

➤ 3면 계속

마이다스캐드 봄맞이 333 이벤트

3월부터 3년동안 30만원씩

24.03.01 - 04.30

자세히 보기 QR코드 ▶

www.midasCAD.com

▶1면<대한건축사협회 제32·33대-제34대 회장 이·취임식 "건축사 경제 안정에 역량 집중...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조속 실현">에서 계속



지난 6년간 의무가입의 실현을 통해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 증대를 위해 헌신한 석정훈 전 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는 설계 도서 검토제, 업무실적에 따른 회비 차등 납부 등과 함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록 회장은 또한 낡은 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없애고, 협회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의 개정 의지도 시사했다.

“지역건축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고, 회원은 건축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품위보전 의무가 있는만큼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어겼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의 준비를 통해 정당하고, 당당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와 건축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지난 6년간 협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증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준 석정훈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인용하며 “내 소원은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의 완성이며, 그 다음 소원도 건축사 의무가입의 완성이라 할 것이고, 세번째 소원 역시 우리 모두 건축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무가입의 완성이라고 대답할 것이오”라며 임기 내 역점사업이기도 했던 건축사 의무가입의 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 등의 축사가 진행됐다.

권영걸 위원장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조선건축사회로 태동해 오늘날까지 도시건축의 발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기술지성의 최고 집단이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건축업계와 건축사들도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한건축사협회 중책을 맡게 된 김재록 회장이 역량을 발휘해 협회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를 가지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축사 높은 금지에 비해

처우 부족

자긍심 가지고

업무 전념할 수 있게

힘 보낼 것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및 17개 시도건축사회회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석정훈 회장이 세워놓은 토대 위에 김재록 회장이 반듯한 건축물을 세우길 바라고, 나아가 건축사협회가 설계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행보에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건축사 여러분이 보람차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건축계를 선도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한 이도 있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쟁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과거 IMF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역시 빠르게 극복했던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건축사 여러분의 일거리와 기회가 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건축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명실상부한 건축계 대표 단체이자, 대표적인 전문기술인인 건축사의 높은 금지에 비해 사회적 처우는 다소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 난관은 1만 8천여 회원을 이끌어갈 김재록 회장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토교통부도 건축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봄을 맞이하는 오늘이 건축사의 신르네상스가 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건승을 기원했다.

다음으로 FIKA 구성단체인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건축 침체, 안전사고 등으로 건축계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김재록 회장의 어깨가 무겁지만 단단한 리더십으로 실타래를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건축의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김재록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은 “건축은 문화의 범주에서 보면 공공적 가치가 가장 강하고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양면 모두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 영역이다”며 “문화의 표현이자, 국격이 되는 건축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건축계의 봄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건축가협회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심상정·김민기·김철민·김정재·김학용 국회의원,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노행식 회장 등의 축하영상이 상영됐다.

축사가 마무리된 후 김재록 회장은 석정훈 전임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았고, 이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김재록 회장은 1만 8천여 건축사 회원을 대표해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간다. 박관희 기자

취임사 전문

저는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의 시간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로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에 대해 성실하게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모든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원 1만 8천 명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으로 협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운영의 중심축인 원장·분과 위원회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하고,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정부 법적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 대변인직을 신설하고, 싱크탱크인 건축연구원 기능을 확대시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제가 지닌 역량을 쏟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국가공인 건축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은 향상하고 사회적 위상은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

적 안정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건축사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건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립과 건축사의 업역 확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사 수급 조절, 건축사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설계, 감리비 덩핑,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 업무 지원시스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첨단 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복지와 노후대책을 위한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와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건축사공제조합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은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역건축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관규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해야만 하고, 명예와 품위보전 의무가 있는 국가공인 건축전문가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하고 회원님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건축사들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개성이 강한 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뜻을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생각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임기를 마치시는 석정훈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이뤄낸 업적은 가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으며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하는 제34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
김재록

축사

정부, 정치계 주요 인사 참석해
건축업계 성원 및 지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 기술지성의 최고 집단, 김재록 회장이 잘 이끌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건축사가 보람차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위해 노력할 것”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건축사들의 일거리와 기회 제공할 것”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
“이취임식 하는 오늘이 건축사 신르네상스를 향한 첫 걸음 되길”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
“김재록 회장의 리더십이 건축 생태계 바꿔놓을 수 있는 등불 되길”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
“국격되는 건축, 국민 사랑 받으려면 모두의 성원과 지지 필요”

▶1면<'월간 건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에서 계속

창간 58주년, 지령 659호 맞아 뜻 깊은 성과 대한건축사신문도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추진

1966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창간된 월간 건축사는 작년 9월을 기해 교보문고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 지령 659호를 맞아 이 같은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됐다. 월간 건축사지는 지금의 한국 건축문화를 일군 건축사의 건축작품과 비평 등을 싣고 있으며, 건축담론과 건축계·각계각층 인사 인터뷰, 해외건축동향, 에세이, 미술·광고 등 건축문화예술 기획 등을 게재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건축전문지를 표방한다. 특히 창간 후 58년 넘게 발간해 온 까닭에 그 제목만 훑어봐도 한국 근현대건축사의 맥락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한편, 협회는 올해 상·하반기 예정돼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도 추진한다. 신문을 국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색 엔진에 실리게 함으로써 더 많은 독자에게 콘텐츠를 노출해 신문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제휴 때 페이지뷰 및 이용자가 10배 이상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온라인 신문 주간 페이지뷰(1만~4만 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매체의 전반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건축사공제조합 제9회 정기총회...2023년 당기순이익 51억 원 기록



지난 3월 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가 열렸다. 사진=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이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출자좌수 585,098좌 중 189,952좌(32.46%)의 출석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을 포함한 유관단체장, 조합원 등 관계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총칙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비상근 이사 선임의 건'은 임

"2024년 재도약 위한 초석 다지는 해"

2024년 상반기 출자지분 1좌당 166,722원으로 확정

기만료 전 사임한 이사를 포함해 이 사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됐고, 비상근 감사 선출의 건은 오공환 후보(주. 다문건축사사무소)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한편, 지난해 조합은 출자금 582억 7400만원, 수수료 수입 91억 9100만원, 용자이자수입 1억 9200만원, 당기순이익 약 5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상반기 출자지분은 1좌당 166,720원으로 확정됐다.

신우식 이사장은 "조합원들을 뵈고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기총회를 계기로 조합은 다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우식 이사장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 조합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2023년 조합 발전을 위해 힘써준 시·도건축사회와 조합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시·도건축사회는 전라남도건축사회와 경상북도건축사회, 조합원은 강성훈 건축사(주.해동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안주호 건축사(주.예촌건축 건축사사무소), 배상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이안), 서영호·김기영 건축사(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가 공동 수상했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년 제자리 설계대가 현실화 반드시 실현...회원 생존권 사수하는 데 온 힘 다할 것"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이 3월 5일 취임했다.

취임 소감에서 김재록 회장은 "의무가입 시대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를 필두로 회원 권익을 증진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Q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요.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 현재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축사의 위상 및 권익 제고를 통한 의무가입 완성을 지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간대가 법제화 ▲건축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회원 참여와 소통 촉진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많은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으신다면.

건축사 업무대가 현실화입니다.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업무 대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민간대가 법제화와 설계변경 및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

- 건축물을 통해
- 국민의 삶, 안전 책임지는
- 건축사의 역할과
- 처우 개선에 최선을
- 회원이 주인이 협회,
- 회원 민원응대율 제고 등
- 회원 서비스 제공
- 지속 강화해 나갈 것

련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사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개선과,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건축 관련 단체, 학계 등과 협력



3월 5일 취임한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하여 업계 목소리를 한 데 모으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협회가 추진하게 될 이러한 과제들은 건축사의 업무대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 업계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회 운영의 중심인 원장

단과의 소통 강화, 분과위원회별 책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그것입니다.

또 회원 서비스 제공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7개 시도건축사회와 137개 지역건축사회로부터 협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마음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 민원응대율 제고 등 회원이 편리하게 협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평생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느꼈던 금지와 대우를 동료, 후배 건축사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회원이자 건축사로서 건축사업계 발전과 건축사의 보다 나은 미래, 그리고 의무가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장영호 기자

사설

일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시스템 고쳐야

건축사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이며, 각 개인이 가지는 성향의 차이가 크다.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디테일한 도면까지 작성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건축사가 있는가 하면, 건축주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인허가를 위한 도서만 작성하는 건축사도 있다. 이러한 내막을 면밀히 이해하는 건축주도 더러 있겠지만, 보다 많은 수의 건축주는 이에 대해 충분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왜 설계용역 비용이 기준이 없고 사무소마다 다른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일단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설계도서 양과 업무량의 차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원하는 서비스 양에 따라 달라지는 용역비용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각기 업무량이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기에 앞서 설계 용역비만 비교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낮은 가격에 최소한의 업무만 진행하는 건축사를 나무랄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업무만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가수주는 설계 도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디자인이 완성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려는 건축사에게 설계자 선정 단계의 매우 어려운 경쟁상대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용역비를 받더라도 더 충실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쪽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면을 더 많이 작성하고자 하는 건축사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하든 어렵다. 설계용역비를 고수하면 수주가 어렵고, 저가라도 수주하면 생활이 어렵다. 일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건축사들은 완성된 건축물을 바라보며 작품 활동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며 투입된 인건비를 보상받고 있으며, 다음 작품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안주하면 안 된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민간의 경우와 달리 공공건축이라고 나온 점이 있는가. 물론 불합리한 점도 많지만 계약된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비 지급은 큰 우려 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참여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수십 개의 제출작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모 참여자들이 소모한 인건비는 당선자의 설계비와 입상작의 상금의 합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되면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들이 함께 고사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제출작이 많으면 설계공모가 흥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와 지역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건축사 업무를, 적게 받고 대충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나빠지도록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가.

시론

얼어붙은 건축경기에도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해

현재 건축건설 경기가 IMF 시절만큼 어렵다고 한다. 한국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부터 2001년도에 경제 활동을 하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 그 어려움이 선뜻 체감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해되지 않는 비유보다 온라인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현재의 경기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본 곳은 건축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다. 1인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회원 수가 약 6700명에 달한다. 2~3년 전만 해도 지역마다 다른 지침과 법규 내용 문의,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요즘은 민간 설계대가 기준과 구조의 분리발주, 설계공모 심사에 대한 불만 등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홍보와 수주 전략'을 주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모임의 분위기다. 2020년 초부터 건축사분들을 사무실로 초대해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물아홉 번의 모임을 통해 120명의 건축사와 만났다. 이 모임 이후 '홍보와 수주 전략' 자료를 네이버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네이버 검색순위를 확인한다. 경기도 지역 사무소의 검색순위를 확인하면 사무소의 블로그 업데이트 나 검색 수요 등을 알 수 있다. 모임 초기만 하더라도 31개 지역의 검색 1위가 절반이 넘도록 앞치락뒤치락하며 바뀌었다. 반면 약 1년 전부터는 그 변동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거의 바뀐이 없다. 이는 사무소의 블로그나 누리집 업데이트가 없거나, 사무소를 검색하는 수요가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고성철 건축사
하하하 건축사사무소

마지막으로 SNS 피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계약과 신축 소식보다 준공 후 건물 사진, 건축물 답사, 여행을 다룬 콘텐츠 비중이 높아졌다. 건축계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숨 고르기를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듯하다.

온라인에서 보는 건축계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못해 침체돼 보이기까지 하다. 코로나19 세계 전쟁과 이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공사비 증가, 대출의 어려움 등 건축사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대내외 환경이 어렵더라도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자신을 알려야 한다. 필자의 경우 개업 5년 차에 간단한 브로슈어를 만들어 빈 땅의 주소지마다 등기 우편을 보냈다. 연락처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두 건의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꾸준히 관리해온 블로그와 SNS를 구독해 온 독자가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웅크리고 있기보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만나는 횟수를 늘려가는 것도 방안이다. 그러한 관계의 범위를 넓히면서 수주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야 한다. 물론 평소에 실력을 쌓고 신뢰를 주는 것은 건축사의 기본이다.

건축계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살길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남들의 방법이 아닌 자신을 알리는 홍보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창의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축사가 아닌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관계 범위 넓히면서

수주 확률 높여야


ALL 바른 환기가전

지구가 깨끗해지는 힘펠 환기

힘펠의 에너지절감, 탄소배출저감 환기기술이
실내공기는 물론 지구공기까지 깨끗하게 바꿔줍니다

36년의 역사
환기전문 힘펠





제로크H
강력환기+따뜻한
온풍까지 2in 1



휴벤E3
건강한 살림을 위한
복합환풍기



바이오후드
조용해서
더 알맞은 주방



휴벤EBN
모든 공간의 환기를
단 한대로



휴벤C3
청문 있고 쾌적환기,
공기청정까지



휴벤W
청가 부착형으로
간편설치


본사 경기도 화성시 안성남로 5 TEL. 1899-0991 FAX. 031-424-0993 쇼룸 www.himpellmall.com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김자영 건축사(대전광역시건축사회)

“건축주의 바람과 설계의도가 합일점을 찾는 과정에서 보람 느껴”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김자영 건축사(주. 느루건축사사무소)
사진=김자영 건축사



김자영 건축사가 설계공모에 참여, 당선작으로 선정된 대전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자료=김자영 건축사

건축사 권익보호 앞장서는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어렵고 힘든 업계,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는 ‘동료애’ 필요한 시기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실무를 시작하면서 ‘언젠가 나의 설계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돌아켜보면 막연했지만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에 오늘날 건축사로서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자격에 따르는 책임감에 두려움도 없지 않았습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또한 착실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겨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었습다.

건축사사무소 작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느루’라는 말은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늘’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취지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래도록 건축 업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낸 것이 느루건축사사무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입회 후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공간(空間)에는 항상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의 쓰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형태나 디자인만 강조된, 이른바 설계자의 의도만이 강요된 공간은 미학적 작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설계와 디자인 의도가 사용자의 요구보다 우선되기보다 건축주(사용자)의 바람과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합일점을 찾고, 이를 완성도

있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설계한 공간이 사용자에게 늘 의미가 있길 기대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주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 취득 전 선배 건축사들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조언을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협회에 입회하고 보니 다양한 이슈와 제도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협회 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협회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단기처방은 물론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데 더욱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사무소 개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민간건축 설계업무의 대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설계업무의 대가 기준이 없으니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하거나, 계약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건축사 본연의 업무다 보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에서도 또 신입 회장님 역시 민간건축 설계업무 대가 기준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준 마련과 더불어 명확한 설계 가이드라인도 제시되길 희망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

이 있을까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료 선·후배 건축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도 밝혔지만 협회에 입회하면서 업계의 이슈와 제도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아가 회원을 위한 협회 사업과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업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돕고 협력하는 등 동료애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정진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관희 기자

해외건축 NOW-RIBA International Awards for Excellence

홍콩 타이 쿤(Tai Kwun), 역사적 건물·신축 조화로 시너지 효과 낚아

역사적 유산 공간 보존하며 신축 건물과 연결
기존과 유사한 외관 디자인 살리며 석조 건물 구조적으로 지지
‘퍼레이드 그라운드’ 광장, 누구나 불편함 없이 방문 가능



타이 쿤은 역사적 유산으로 규정된 공간을 보존하면서도 두 개의 건물을 준공해 기존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사진=RIBA, 설계=Rocco Design Architects, Herzog & de Meuron

홍콩 타이 쿤 문화유산 예술센터(Tai Kwun - Centre for Heritage and Arts)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세워진 주요 경찰서, 행정관, 교도소 등이 남아 있는 홍콩의 역사적 기념물 중 하나다. 도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홍콩의 로컬 Rocco Design Architects에서 총괄 건축을, Herzog & de Meuron에서 디자인을 맡았다.

타이 쿤의 특징은 역사적 유산으로 규정된 공간을 보존하면서도 두 개의 건물을 준공해 기존과 연결했다는 점이다. 16개의 역사적인 건물과 신축 건물, 야외 공간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높은 화강암 벽으

로 둘러싸인 경찰본부 부지 내 광장인 퍼레이드 그라운드(Parade Ground)를 란콰이퐁(Lan Kwai Fong), 소호(Soho) 등의 지역과 이어지게 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중간 에스컬레이터와 타이 쿤 라인(Tai Kwun Lane)을 남과 북으로 연결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타이 쿤에 방문할 수 있다.

새로 준공된 JC 컨템퍼러리와 JC 큐브는 기존 건물과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을 강화했다. 화강암 블록의 기존 요소를 참고해 주조 알루미늄으로 외관을 디자인했다. 독특한 물성을 표현하면서도 기존 석조 건물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주조 알루미늄은 낮 동안 빛 반사율을 줄여 방문객의 눈부심을 최소화한다. 밤에는 건물



새로 준공된 JC 컨템퍼러리와 JC 큐브는 주조 알루미늄으로 외관을 디자인해 독특한 물성을 표현하면서도 기존 석조 건물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RIBA, 설계=Rocco Design Architects, Herzog & de Meuron

에서 방출되는 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해 빛 공해를 막는다. JC 컨템퍼러리는 현대미술 갤러리, JC 큐

브는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활용 중이다. 조아라 기자

대한건축학회 제41대 회장에 박진철 중앙대 교수 당선

국가계약법·건축서비스 제도개선 건축교육 제도개선 관련 5년, 4년 및 2(3)년제 비인증 졸업자 위한 프로그램 구축 공약



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사진=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제41대 회장에 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박진철 교수는 득표율 51.72%(2,407)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년.

그는 ▲건축교육 및 인증제도 개선 ▲국제 공동연구 및 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가계약법 및 건축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선진화 기반 마련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와 건축시장 위축에 대비한 건축교육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통합프로그램(통합 입학 후 3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 제시 ▲4(학부)+2(대학원) 건축학인증프로그램 및 학·석사 연계과정 활성화 ▲5년, 4년 및 2(3)년제 비인증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41대 회장 취임식은 오는 4월 26일 열릴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장영호 기자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가능

서산비행장 등 총 339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17배 규모



국방부가 총 339km²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사진=뉴스1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제곱킬로미터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관련 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월 26일 ‘국민과 함께하

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제곱킬로미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제곱킬로미터),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제곱킬로미터) 등 총 339제곱킬로미터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제곱킬로미터(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

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개간 또는 지형변경도 가능해져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제곱킬로미터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건축조형 품 메이커 3D 퍼즐 ‘GEOMETREE’ 특허 등록한 이광열 건축사

“지오메트리는 건축이 일상이고 삶이라는 걸 공감하게 합니다”

지오메트리, 기하학과 자연의 합성어

자연 구조·한글 수학적 원리 담아 개발

종이로 만들어 가볍고 간단한 구조, 초등학생도 사용 가능

KOTRA 주관 사업 선정, 일본·중국·네덜란드 등 해외에도 수출

2019년부터 시작된 토요건축학교,

교육부 선정 건축분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뽑혀



지오메트리는 종이로 제작돼 가볍고 활용 방식이 단순해 초등학생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광열 건축사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건축학교를 시작하는 등 건축교육에도 적극적이다.

“건축은 일상이자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건축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매일 다양한 공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때때로 유명 건축물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건축은 우리 일상과 멀어질 수 없는 문화이자 역사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 내에 건축을 교과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가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 지오메트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오메트리(GEOMETREE)는 기하학(Geometry)과 자연(Tree)의 합성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오메트리는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기하학적인 건축을 이해하고, 자연 속의 건축 요소를 찾아 발전하겠다는 의미다. 이광열 건축사(메이드 건축사사무소)는 자연 구조의 모방을 통해 지오메트리를 개발했다. 더불어 한글의 수학적 원리를 반영했다. 실제로 제공되는 블록은 한글 자음인 ㄱ자, 수학의 더하기인 +, 한글의 모음인 ㅏ자를 형상화했다. 종이로 제작돼 가볍고 활용 방식이 단순해 초등학생도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지오메트리 웹3D 플랫폼에 접속하면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통해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있다. 이

입력값은 조건에 따라 건축적·구조적 기하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융합교육용 블록을 디자인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플랫폼은 건축, 수학, 기하학, 프로그래밍과 컴퓨터이론, AI, 프랙털 디자인 등 전문 기술을 웹과 연동해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오메트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수출되고 있다.

“지오메트리는 지난해 1월 첫 출시 이후,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코트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 칭다오 무역관 사업에 선정돼 중국 시장에 첫 수출을 달성했고, 1688.com과 바이두 등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하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 후 네덜란드 bol.com과 일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마쿠야게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온라인(ONLEE)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입니다.”

건축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지오메트리인 만큼 이광열 건축사는 건축교육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건축학교를 시작했다. 건축교육



이광열 건축사-메이드 건축사사무소 사진=이광열 건축사

이 어린이·청소년의 자유로운 발상, 개성적 표현 능력을 키워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 디자인의 생활화가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조형 능력과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킨다고 봤다.

“처음에는 저희 집 아이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처럼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토요건축학교를 준비하면서 건축교육의 장점이 많다는 걸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특히 수학, 미술, 과학 등의 지식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건 건축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꾸준히 건축교육에 나선 이광열 건축사의 토요건축학교는 2022년 교육부에서 선정한 건축분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뽑혔



지오메트리(GEOMETREE)는 기하학(Geometry)과 자연(Tree)의 합성어로 기하학적인 건축을 이해하고, 자연 속의 건축 요소를 찾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이광열 건축사

다. 전국에서 이광열 건축사의 토요건축학교 한 곳만이 선정됐다. 이후 이광열 건축사는 건축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의 멘토로 활동 중이다.

“건축은 삶이자 일상입니다. 건축사로 일하면서 2D 도면이 건축물로 준공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저의 건축철학입니다. 이는 지오메트리에도 반영됐습니다. 3D 퍼즐로 활용될 뿐 아니라 책장, 테이블, 공간박스, 조명 등 가구로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야말로 건축이 삶이고 일상이라는 걸 공감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아라 기자

국토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2천 곳 점검...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해 실효성 높여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 건설

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빅데이터

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조아라 기자

K-건축이 간다! ②

정림건축의 손길 닿자 하노이서 가장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우뚝,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지역 문화와 전통 이해 바탕으로 K-컬처 색깔 입혀 '인기'
자연채광과 개방적 공간감이 주는 매력에 시민들 온종일 체류
본사와 현지 PO 파견팀 협업,
설계단계부터 현지화 전략 성공으로 이어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상업시설 설계 노하우가 심본 발휘된 정림건축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전경. 사진=윤준환



개방적 공간감이 주는 매력이 현지인들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진=윤준환

중 종착점으로 경유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흥강을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 식당, 문화공간,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식 쇼핑과 오락을 결합한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한 하노이에서는 실내활동의 중요성이 높다. 때문에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경우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부터 자연채광과 개방적인 공간감을 중요시해 현재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설계를 맡은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정림건축)는 국내 영등포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중국 심양 롯데월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업시설 설계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공간의 연출, 도시적 맥락에서 유추해 낸 건축물의 정체성, 주변 개발 사업과의 경쟁력 확보 등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물론 한 발 앞선 대지분석·마스디자안·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한 마스터플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다.

정림건축 이창현 모빌리티 BU BL과의 일문일답



이창현 모빌리티 BU BL(Business Leader)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Q.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건축물 설계 수주단계에서의 에피소드와 함께 설계 과정에서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건축물도 그렇지만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각 관계자 간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시공 시까지 현지에서 PO(Project Office)를 설립해 서울의 본사 설계팀과 현지의 건축주, CM,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업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현지사와 인허가권자 등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최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Q. 해외 건축 설계과정에서 추구하는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와 풍토가 다름에서 오는 재료의 특

성과 전통적인 방식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축한 문화와 그로 인해 표출되는 건축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지인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현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추구해 독창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물 설계(안)가 완공으로 이어져 대중들을 만났을 때,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또 개인적인 감회와 소감도 궁금합니다.

하노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한국보다 소득 수준은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체 인구 대비 젊은 연령대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시설은 그리 많지 않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오픈 당시부터 현지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현지에서 접하기 어려운 아쿠아리움, 키자니아,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 하노이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체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완공까지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주처에서의 결정과

사업 타케팅 및 설계, 시공 등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의 타임라인이 꽤 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린 덕분에 오픈이 되었을 때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Q.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주의할 점과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문화, 역사, 기후, 환경, 경제상황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지의 법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노이의 건축 관련된 모든 법규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건축허가, 안전 관련 규정 등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될 수 있겠지만 현지의 시공법, 자재 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건물에서 흔히 쓰이는 공법, 자재가 현지에서는 생소하고 다소 고가의 시공법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노이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런 모든 제반 요소를 고려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방문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역시 저층부 포디움에 쇼핑몰과 아쿠아리움, 마트, 영화관이 있고, 3개의 타워에는 각각 호텔, 서비스레지던스와 오피스가 있다. 특히 호텔과 서비스레지던스는 서호변 뷰를 확보할 수 있게 평면을 구성했고, 두 개의 타워동은 상부층에서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 연결성을 가미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쇼핑몰이 위치하는데, 세 개의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과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선사하고 있다. 2개 층을 가로지르는 익스프레스 에스컬레이터는 2층에서 4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며, 4층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내부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옥상정원으로 구성된 6층은 해가 진 후 더욱 빛을 발한다. 호텔과 서비스레지던스의 투숙객들의 전용공간인 이곳은 일몰이 지는 서호의 풍광을 감상하며 일상의 피로를 녹이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타임스퀘어, 중국 심양 롯데월드

등을 설계하고, 하노이 프로젝트도 총괄했던 이창현 건축사(정림건축 모빌리티 BU BL)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프로젝트는 하노이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들을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서울 본사 설계팀과 현지 PO 파견팀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현지화를 위한 팀원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하노이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LH, 올해 설계·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 7,000억 원 발주계획

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1,000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5만 가구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공공)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연간 LH의 발주물량은

10조 원가량이였다.

LH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부분은 총 7000억 원(468건) 규모의 발주가 예정돼 있다.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 규모이다.

LH는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

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 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 원(96건) ▲적격심사제 2조 7000억 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 원(76건) ▲적격심사 4000억 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 증가했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토목 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건축공사가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조 5,000억 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 원(118건)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

어진 주택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설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IF 디자인 어워드서 12개 작품 수상 쾌거

대한민국 건축사, 세계 3대 디자인상 ‘IF’

공공건축 8작품, 주거 1작품, 9개 건축디자인 우수성과 혁신성,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전시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상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다수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부문에서 총 12개 건축물이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 중 하나다. 1953년 독일에서 설립돼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매년 상을 수여한다.

심사과정은 매우 엄격하며,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심사가 이뤄진다. 수상을 하게 되면 IF 월드 디자인 가이드, IF 디자인 앱 및 IF 디자인 어워드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는데, 이를 통해 디자인업계에서의 국제적인 인정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우수성, 혁신성 등을 증명받게 된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올해 20개국 이상에서 총 132명의 심사위원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찾고, 차세대 떠오르는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 부문에서 ▲윤근주 건축사+Mladen Jadic 오스트리아 건축사,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Jadic Architektur ZT GmbH(황학동 옥수수집, 대구 수성구 들안마을 옹커시절

김시흥 황남인 건축사 내러티브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부안 예술공방 김이홍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 슈퍼빈 아이엠펙토리 김이화 건축사 (주)아이티엠유이화 건축사사무소 유동룡 미술관 박지원 건축사 JM건축사사무소 Floating 717

IF 디자인 어워드 출품안내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입니다. 1954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로 IF 수상 라벨은 커뮤니티, 소비자, 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으며 우수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56개국에서 약 11,000건의 출품작이 접수, 21개국 출신 133명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습니다.

참가대상
글로벌 기업부터 로컬 기업, 스타트업이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 디자이너,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부터 학생까지. 현재 제품, 프로젝트, 서비스, 어떤 것이든 만들고 있다면 규모와 배경에 상관없

이 장소가 속한 신당동 중앙시장은 전통 시장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큰 시장이다.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로, 거리 자체가 광장 역할을 한다. 이 거리는 주로 30년 이상 된 두 층 건물들로 늘어서 있으며, 가끔 비슷한 나이의 네 층 건물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콘로우 하우스는 기존 건물 공간을 새로운 콘텐츠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기존 상점들을 강조하여, 그들을 옛 도시에서 찾아야 할 목적지로 만들고자 한다.



사진=배지훈

창조를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설계자는 수성못 주변의 축 공간 네트워크와 문화적 터전인 들안 마을에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을 맡았다. 해당 부지는 들안 어린이 공원 주변의 다가구 주택 중 하나다. 프로젝트는 새로운 건물로 계획될 수 있었지만, 기존 주거 유형을 현대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보존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부 및 외부 공간의 리노베이션을 선택했다.



사진=남궁선

부안 구시가지에 위치한 부안 소금 공장은 지역 상설 시장 근처에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제 소금을 생산했다. 이 시장은 어업 산업이 번성하던 부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9년 운영이 중단된 후 폐허가 됐다. 이제 부안 소금 공장의 자리에는 부안 예술 공장이 세워졌다. 이 공장은 특이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좁은 입구를 통해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시설로 설계된 이 건물은 상설 시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긴 금속 파사드를 특징으로 한다.



사진=신경섭

'im_factory'의 U자형 유형은 SuperBin의 핵심 철학인 순환 경제를 상징한다. 이는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인프라와 분류·수집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 재활용 시설이다. 공장의 U자형 배열을 통해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입구 풍경과 전시 공간을 통해 방문객들이 재활용 과정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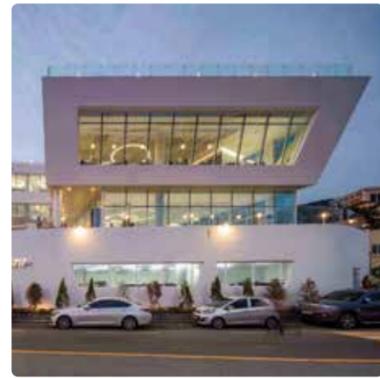
사진=홍기웅

이타미 준 미술관은 고인이 된 일본계 한국인 아키텍트, 이타미 준에게 헌정된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그의 건축 철학인 '건축은 지역적 맥락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그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과 주요 건축 언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설계자는 제주의 장소에 적응하면서, 제주 숲의 수평적이고 평온한 자연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미술관을 둘러싼 야생 자연에 활동적인 개방 공간을 만들으로써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고, 자연광이 중앙 타원형 질량을 통해 흐르면서 깊은 공간 내부로 자연광이 침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김용관

창원 해안을 바라보는 이 장소는 도시와 멋진 바다를 연결하는 길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 이 지역은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는 많은 조선소가 있었지만, 최근 중공업의 쇠퇴로 인해 관광지로 변모했다. 현재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이 땅은 이 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사진=JM건축사사무소



윤근주 건축사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황학동 옥수수집



윤근주 건축사·Mladen
Jadic 오스트리아 건축사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
사사무소(주), Jadic
Architektur ZT GmbH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대구 수성구
들안마을 옹커시절



김시흥·황남인 건축사
내러티브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부안 예술공방



김이홍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슈퍼빈 아이엠펙토리



유이화 건축사
(주)아이티엠유이화
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유동룡 미술관



박지원 건축사
JM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Floating 717

글로벌 건축 커뮤니티 한국 건축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024' 12개 석권

인테리어 3작품 수상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통해 전 세계 소개

들안마을 앵커시설) ▲김시흥·황남인 건축사, 내러티브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부산 예술공방) ▲김이홍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수퍼 빈 아이엠펙토리) ▲유이화 건축사, 주.아이티엠유이화 건축사사무소(유동 통 미술관) ▲박지원 건축사, JM건축사사무소(Floating 717)가 수상을 했다. 대형사인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각각 국립 세계문자박물관과 HD현대 글로벌 R&D센터 통해 수상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 주거부문(Residential Architecture)에서는 ▲오현일 건축사, 제오 건축사사무소(주.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인테리어 (Office Interiors)부문에서는 ▲김석훈 건축사(주.헤이드건축사사무소)가 부산 위

축디자인

내에서

위상 높여

크스테이션 센터(김석훈 건축사·정슬아 미국 건축사)와 서울정민학교를 통해 각각 수상했으며, ▲정우훈 건축사(주.에이아이건축사사무소)도 작품 'Brighten Yeouido'로 상을 받았다.

한편, 작년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는 전이서 건축사의 '누리봄 다함께 키움센터'가 금상, 흥성용 건축사의 'WYM(WOOYOUNGMI) 아카이브 사옥 리노베이션', 그리고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의 'NAVER 1784'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들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기존 공간의 재해석과 같은 한국 건축디자인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서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영호 기자

이 iF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

9개 출품부문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인테리어, 프로페셔널 콘셉트, 서비스디자인, 건축,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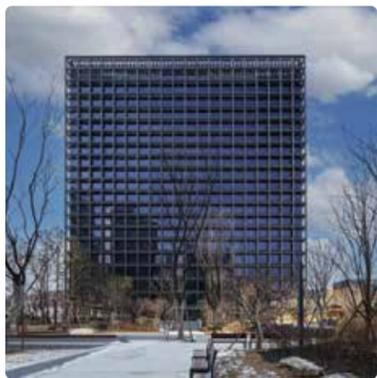
전 세계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된 5개 심사기준(아이디어, 형태, 기능, 차별성, 영향력)에 따라 iF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평가.

출품 문의 및 상담

iF 한국지사 02.517.6426
ifkorea@ifdesign.com
www.ifdesign.com



사진=(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박완순



사진=배지훈



사진=최용준



사진=이한울



사진=(주)에이아이건축사사무소

세계문자박물관은 인류의 보물이자 가장 뛰어난 발명품인 세계 문자 체계 문명의 역사와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PAGES'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공원의 풍경이 지속적으로 기록된다. 'PAGES'는 문자 체계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 공간, 그리고 건축적 장치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기록된 문자 체계'의 특성과 유사하게, 'PAGES'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람들과 박물관, 그리고 박물관과 공원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HD현대 글로벌 R&D센터는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통합 사옥으로,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CUBE', 'VOID', 'GRID'이다. 철골프레임을 외부에 노출한 아웃프레임 파사드는 철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지역에 새로운 경관을 창출한다. 건물 중앙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보이드 공간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직원 간의 창의적인 소통 및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최상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건물의 저층부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건물의 독특한 외관 및 내부 보이드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제주 갤러리 하우스는 인접한 문화유산인 동자복에 영감을 받아 설계됐다. 초기에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전시 공간과 상층의 거주 공간이 있는 문화 시설로 수정했다. 외관은 검은색과 둥근 형태로 동자복을 닮았다. 갤러리는 전시된 작품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흰색 배경을 사용했고, 거주 공간에서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공공과 사적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갤러리 하우스는 방문객들이 문화적 경험과 자연 경관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PLAY, WORK, LIVE! 부산에서의 워크스테이션 새로운 직장 트렌드인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반적이게 됐다. 최근에는 '워케이션(Workation, 일+휴가)'이라는 추가적인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가와 관련된 장소에서 유연하게 일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제 워케이션 트렌드를 사용하여 직원들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정민학교는 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학교로,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을 위해 감각 놀이방과 운동실을 포함한 특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교실 상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는 현재 학생들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공간 환경을 창출하고, 각 운동 영역과 보관 공간 사이의 상호 연결된 배치를 통해 더 효율적인 재활 및 놀이 활동을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SHINYOUNG의 고급 주거 브랜드 BRIGHTEN의 핵심 철학인 균형 잡힌 공간, 아름다운 순간, 더 나은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빛에서 영감을 받은 유닛 인테리어 컨셉트는 프리즘이다. 레이아웃은 가능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세 면이 열린 LDK(거실-식사공간-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통일감과 개방감을 높인 구조다. 창문은 프리즘 역할을 하며,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이 다양한 색 스펙트럼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각 타입마다 다른 포인트 색상을 적용하여 각 타입에 색상 정체성을 부여한다. 프리즘 컨셉트로 구성된 주거 공간은 고객들이 BRIGHTEN의 브랜드 슬로건인 'Brighten Your Life'를 은유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NIKKEN SEKKEI
Architecture
/ Public Architecture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오현일 건축사
제오 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e
/ Residential Architecture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김석훈·정슬아 미국 건축사
(주)헤이드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 에스플러스
Interior Architecture
/ Office Interiors
부산 워케이션 센터



김석훈 건축사
(주)헤이드 건축사사무소
Interior Architecture
서울정민학교

정우훈 건축사
(주)에이아이 건축사사무소
Interior Architecture
/ Residential Interiors
Brighten Yeouido



FOCUS - 2024 Pritzker Architecture Prize

日 ‘야마모토 리켄(Riken Yamamoto)’, 2024 프리츠커상 수상

“내게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 건축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며 문화와 생애 단계를 넘나들며 조화 이룰 수 있어”
한국 성남의 ‘판교주택’, ‘세곡동 아파트’도 설계



야마모토 리켄 (Riken Yamamoto), 사진=Tom Welsch

올해 프리츠커상(2024 Pritzker Architecture Prize) 수상자로 아키텍트이자 사회 옹호자인, 일본 요코하마 출신의 야마모토 리켄(Riken Yamamoto)이 선정됐다.

하얏트 재단이 후원하는 프리츠커상은 1979년 창설되어 매년 건축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아키텍트에게 수여되는 국제적인 상이다. 야마모토 리켄은 1945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일본의 아키텍트로서 1973년 Riken Yamamoto&Field Shop Co., Ltd를 설립했다. 그의 접근 방식과 철학은 현대성과 관련된 깊은 사고를 반영하며, 작업은 종종 사회적 사회작용과 커뮤니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관점을 통해 건축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법을 탐구하기로 유명하다.

3월 5일 하얏트 재단에 따르면,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단은 “야마모토 리켄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수요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각 개별 건축 반응을 조정하기 위해 건축 규율에 질문을 던지며, 무엇보다도 건축에서, 민주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간은 사람들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프리츠커 수상자이자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도 “도시의 미래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야마모토는 단순한 요구사항을 넘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의 대표작들은 혁신적이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건축철학을 반영한다. 그의 프로젝트는 개인주택에서 공공주택, 초등학교에서 대학 건물, 시민 공간,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본, 중국, 대한민국, 스위스 전역에 위치해 있다.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나고야 조형 대학(나고야, 일본, 2022), 취리히 공항의 THE

CIRCLE(취리히, 스위스, 2020), 텐진 도서관(천진, 중국, 2012), Ecoms House(일본 도스, 2004), 미래 대학 하코다테(일본 하코다테, 2000) 이와 데야마 중학교(오사카, 일본, 1996) 및 호타쿠보 주택(구마모토, 일본, 1991) 등이 있다. 특히 판교 주택(성남, 대한민국, 2010)의 경우 아홉 개의 저층 주택 블록으로 구성된 복합 단지로, 이웃 간의 상호 연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층 커뮤니티 데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모임 공간, 놀이터, 정원, 그리고 한 주택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연결되는 다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야마모토 리켄은 “내게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건축 접근 방식은 프라이버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건축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며 문화와 생애 단계를 넘나들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얏트 재단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프리츠커상의 53번째 수상자이며, 일본 출신으로는 아홉 번째다. 올 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수상자 강연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5월 16일 열려, 대중에게 대면 및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Ecoms House(야마모토 리켄)

사진=Shinkenchiku Sha



Hotakubo Housing(야마모토 리켄)

사진=Tomio Ohashi



판교주택(야마모토 리켄), 판교 주택(성남, 대한민국, 2010)의 경우 아홉 개의 저층 주택 블록으로 구성된 복합 단지로, 이웃 간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는 투명한, 지상 층 블록으로 설계됐다. 2층 커뮤니티 데크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모임 공간, 놀이터, 정원, 그리고 한 주택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연결되는 다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사진=남공선

REPORT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공공공사 발주 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공공공사 집중 발주, 비용 상승·공사기간 연장 등 문제...일본, ①평준화율 ②제도 정비 ③확산 정책으로 공공공사 발주 평준화 벤치마킹 해야

대체로 10억 원대 미만 공공공사, 자금 운용 폭 적은 중소기업 맡아

일본,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발주자 책무’ 명기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위한 3단계 정책 운영

공공공사의 발주 시기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발주 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지자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사례를 연구했다. 일본은 ▲법률 개정 ▲평준화를 측정 기준 마련 ▲대처 방안 개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2014년부터 공공공사 발주 평준화를 시도해왔

다.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는 단년도 예산주의, 재정주의 원칙 등으로 인해 통상 3월에서 6월 사이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관련 비용 상승,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휴식기·휴한기·장마 시기 등 특정 시기에 공사 현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괄 개정해 공사 수행 시기의 평준화를 발주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공사 사업 참여자는 물론 해당 지역에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정책은 3단계로 운영된다. 첫째,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을 위한 평준화율 기준 마련이다. 일본이 마련한 평준화율 기준은 발주기관별 통상 공사 수행 시기가 집중되는 4~6월 대비 연간 전체 월별 평균 가동 건수의 비율이다.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가 평준화 됐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다. 실제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①채무 부담 행위의 활용 ②유연한 공기 설정(여유 기간 제도 활용) ③신속한 이월 절차 ④설계·적산 조기 완료 ⑤조기 집행을 위한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합동으로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율과 다양한 대처 방안의 적용 현황 공표 및 이행 확대를 요구하는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전국 67개 광역지자체 및 1,458개 기초지자체의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율과 평준화를 위한 다섯 가지 대처방안의 적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공사 발주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는 연중 안정된 사업 물량 확보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공공사 대비 민간공사의 발주 물량이 크고,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98.9%가 10억 원 미만의 공사인 까닭에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특정 시기 집중 발주 관행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평준화율 산정 근거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선행을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수상 그 후 36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유리트리트'

'당신의 온전한 휴식 공간'이라는 뜻

40미터 거리 수직 절벽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 건축물

곽희수 건축사 "건축이란 자연을 대하는 태도"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수상작 '유리트리트'

설계=곽희수 건축사, 주.이템건축사사무소, 사진=김재운

'Retreat'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의미를 함께 볼 수 있다. 대체로 '아래' 혹은 '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후퇴', '물러서다', '하락'이라는 항목은 모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항목 중 하나가 특별히 눈에 띈다. 바로 '휴양지'라는 의미다.

"휴양지"라면 쉬는 곳인데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한 후 "아, 쉬려면 일단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후퇴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임전무퇴(臨戰無退)라는 말처럼, 세상은 전장(戰場)이며 후퇴는 되도록 없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한 단어에 '후퇴'와 '휴양지'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한 '유리트리트(URetreat, 곽희수 건축사·이템건축사사무소)는 일상에서 잠시 후퇴하며 휴양을 경험

하는 건축물이다.

넓은 하천과 높은 둔덕(垜谷)을 뜻하는 "홍천(洪川)군 대곡(垜谷)리"는 오랜 시간 동안 대지가 처한 상황을 상상케 하는 지명이다. 소리산 줄기, 사리골 계곡이라 불리는 해발 100미터의 수직 절벽은 불과 40미터 거리에서 대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 거석으로 결박된 절벽의 규모와 그 안에서 무심히 자라난 식생들의 생명력은 주변을 압도한다.

'유리트리트'는 사리골 계곡이라 불리는 해발 100미터의 수직 절벽이 불과 40미터 거리에서 건축물을 내려다보는 환경이다. 도시에서 후퇴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이 나름의 생명력을 뽐내며 말 그대로 '리트리트'에 집중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설계자 곽희수 건축사는 "일상으로부터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일단 후퇴한다는 개념이다. 지금 우리 사

곽희수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곽희수 건축사
주.이템건축사사무소

Q. 건축물의 이름을 왜 '유리트리트'로 짓게 됐는지요?

처음에는 객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숙박시설 개념이었어요. 그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허가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 장소는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객실을 원래 계획보다 반 이상 줄이고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자 'Retreat'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설계하시면서 추구한 '리트리트'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가톨릭에서 자주 쓰는 '피정(避靜)'이라는 개념 아시지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일단 '후퇴'한다는 개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부터 X세대까지 모두 죽어라 하고 일하고 죽어라 하고 노는 세대거든요. 휴가를 받아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경쟁적

로 늙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좀처럼 계획에서 벗어나 그냥 쉬기를 바랐습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일단 일상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곳의 대지 조건이 그러한 생각을 실현하는 데 딱 맞았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1킬로미터 정도 더 들어가야 '유리트리트'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Q. 건축물을 설계할 때 특히 더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곳은 건축물이 먼저 생기고 주위 환경이 조성된 곳이라기보다는, 해발 10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병풍과 같은 환경에 건축물이 어떻게 말을 걸고 소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건축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직 정원이 있고 낮은 둔덕에 위치해 있고 그렇다면 건축은 전망대나 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명상과 요가가 익숙한 우리에게, 동양적이거나 우리가 즐기는 형태의 리트리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트를 현재 환경에 맞게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한쪽만 지면에 닿아 있는 지면의 모양이 특징적인데? '학'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늘을 나는 학의 형상을 생각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이라는 크고 무거운 질량감에 가볍게 학처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유닛이나 소형 건축적인 방향성 이런 것이 없었나 하는 생각 끝에 만들어 본 겁니다.

Q. 수직 절벽을 건축물 내부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 면에서 고려한 점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과 수직 절벽은 4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는 떨어져 보려는 태도에서 높이들이 정해지고, 높이에 따라서 수직 무대의 변화를 목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연의 변화를 가장 목격하기 좋은, 관찰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 침실은 다 위쪽에 있어요. 숙박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높다'와 연관된 의미이기 때문에 침실에서 누워서 수직 무대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를 이끄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X세대까지 죽도록 일하고, 놀 때도 경쟁적으로 노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논다는 것이 아니라 쉰다는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계 작업에 나선 생각을 밝혔다.

나무들의 자유로운 군집이 만들어낸 절벽 형상처럼, '유리트리트'는 각 단위 건축물의 자유로운 집합체

다. 각 유닛은 '따로 또 같이'라는 개념으로 개개의 특징을 통해 커다란 일체감을 만든다. 마치 나무가 지면에 최소한의 부분만 닿는 것처럼, 각 유닛은 비규칙적 지면에 대응하기 위해 지면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한다. 이로 인해 건축물은 다양한 경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내부 공간 역시 다양한 높낮이를 이용해 여러 목적으로 공간을 배치

하며, 일상에서 후퇴해 온 이들에게 연속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수상 후 어느새 8년이 지난 '유리트리트'는 강원도 홍천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바로 옆의 수직 절벽과 협곡을 닮은 건축물에서는, 온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이곳을 찾아 '리트리트'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서정필 기자

아톰월드 기계식주차

국토교통부 주차대수 인정

실 사용 목적의 효율적인 주차(특허 제 0917225호, 1884830호)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2월 23일 시행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

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이번 개정으로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자료=국토교통부

자재 & 테크 프리즘

플렉스폼코리아, 친환경 섬유복합소재로 건축분야 시장 진출

식물섬유 '양마' 활용해 중금속·유해물질 없어



플렉스폼코리아의 섬유합판. 사진=플렉스폼코리아

최근 마감재 시장에서 신소재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수요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탓이다. 실내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를 살펴봐도 친환경성에 가볍고 뛰어난 내구성, 우수한 충격 흡수와 흡음의 장점을 가진 섬유합판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자동차용 내외장 소재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플렉스폼코리아가 집, 사무실 등의 공간에 사용될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국내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의 두께, 강도, 사이즈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플렉스폼코리아의 섬유합판은 별도의 접착제 사용 없이 식물섬유 '양마'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중금속과 유해물질(VOC)이 검출되지 않는다. 또한 수분노출에 따른 변형에 강한 친환경 제품이다. 제품이

섬유로 되어 있다보니 미세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리와 진동을 감쇠시키고, 열전도율이 낮아 보온·단열성이 우수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플렉스폼코리아 관계자는 "건축자재나 가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반제품의 형태로 공급해 왔지만, 향후에는 시트 필름이나 천을 부착하는 등의 추가 가공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재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벼운 제품 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DIY 제품도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B2C)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국회 입법 동향

철도지하화 특별법 공포, "도시철도 지상구간은 별도 입법 필요"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지난 1월 정부와 여야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법안이 공포돼 추진이 임박하고, 하도급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도 본회를 통과·공포됐다. 1월과 2월, 제22대 국회의 원 선거를 앞둔 탓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건축 관련 눈여겨볼 입법 사례가 있어 정리했다.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 제26188호 '24년 1월 30일 공포

제정 법안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통한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철도

지하화 사업 및 철도부지 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법 적용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국가철도에 대해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수 도시철도 지상구간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41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는데, 도시철도는 소유가 지자체·지방 교통공사가 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서로 로직이 달라 추후에 이 부분을 별도로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적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발언이라고 하겠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 제26444호 '24년 2월 27일 공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 건축법 개정안의안번호 : 제26568호 '24년 2월 29일 본회의 의결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필로티에 창고 등의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기준을 초과해 확장 공사 한 경우 등과 같이 위반 사항이 발각 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되는 특징이 있다.

◆ 메가시티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 26503 '24년 2월 7일 제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두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 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 26537 '24년 2월 20일 제안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관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6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 전직 교수 심사위원 구속

뒷돈 건넨 의혹, 감리업체 대표도 구속영장 발부

LH 발주 용역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 출신 심사위원과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감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

월 27일 발부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주 모씨,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주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김 모씨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사위원 주 모씨는 2020년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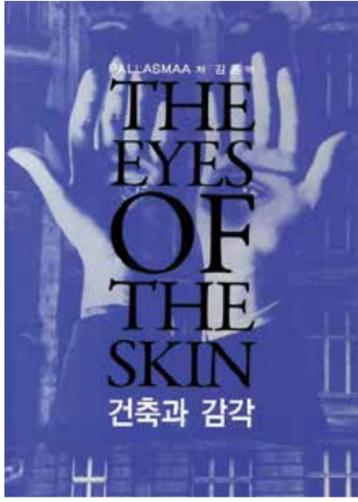
다.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평가위원 허 모씨에게 총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과 함께 피의자 심문을 받은 현직 대학교수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모

씨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수금액,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과 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청탁 등이 오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관희 기자

책꽂이

건축사 설계 업무에 끊임 없는 영감 제시, '건축과 감각'



건축과 감각 표지 사진=시공문화사

건축과 감각(the eyes of the skin)
Pallasmaa Juhani 저/ 김훈역 / 시공문화사

건축을 '눈'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책 '건축과 감각'은 이러한 '시각'에 편중되고 이미지로 소비하는 건축풍도를 비판한다. '시각'은 원초적인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 건축을 지적인 논리체계로 구축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저자는 감각기관으로서 시각의 절대적 역할과 그 우위

시각으로만

건축 평가 안돼

통합적 감각 자극하는

건축돼야

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각'으로만 건축을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형공간에서 소리울림 현상을 알게된 기억과 빛바랜 황동손잡이를 잡아본 느낌을 소환하며,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한 경험을 중시한다.

현상학에 기반한 건축책들은, 근원적인 질문에만 치중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했던 반면에 이 책은 사례들과 대안을 제시하며 설계업무에 영감을 준다. 결론은 '시각'에만 의존하는 건축이 아니라 통합적 감각을 자극하는 건축을 설파한다. 이때 '통

합적 감각'이라 함은, 감각기관들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기억과 상상, 그리고 치유의 기능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가장 흥미롭다. '짙은 그림자는 시각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깊이와 거리를 모호하게 하면서 무의식적이고 주변적인 시야와 촉각적 공상을 불러내기 때문이다.'(68p)라고 설명한다. 마치 불꺼진 현관에서 벽을 더듬거리면서 손끝이 예민해지는 몸-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트임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산동호회, 관악산서 시산제 가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산동호회가 2월 17일 관악산 등산과 함께 시산제를 진행했다. 오전 10시경 관음사 입구를 출발한 일행은 깃대봉, 마당바위를 지나 삼거리, 마당바위까지 올랐다. 하산길에는 관음사 인근 효민공이경직 묘역 앞 공터에서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전거동호회, 2024년 제1회 정기 라이딩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전거동호회가 2월 24~25일 1박 2일간 여주 금모래펜션에서 시승제를 갖고 제1회 정기 라이딩을 진행했다.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한 시승제는 11명의 회원이 참여해 올 해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다. 다음날에는 금모래-이포보 구간(40킬로미터)을 함께 달리며 올해의 첫 라이딩을 즐겼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음악동호회, 시창 및 합주 연습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음악동호회는 1월 시창에 이어 2월에도 밴드와 통기타 두 팀으로 나눠 합주 연습에 열중했다. 3월 8일에는 Open Ensemble Day를 통해 합주를 이어 나갔고, 3월 22일에는 다양한 곡 선정을 위한

프리송 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교육 커뮤니티 플랫폼 '렉터스'와 MOU 체결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15일 건축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 '렉터스(LECTUS)'와 건축 관련 행사 및 홍보지원과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렉터스는 건축/3D 분야 특화 강의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부산시건축사회와는 부산 학생 건축 페스티벌(BSAF)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건축 관련 행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 교류(건축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교환) ▲행사 및 홍보지원(건축사회 행사 및 렉터스 프로모션 등 홍보 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할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대의원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제58회 대한건축사협회 및 부산건축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2월 16일 부산시건축사회관 3층에서 부산시건축사회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주요 행사 일정과 더불어 정기총회에서 다루지는 안건의 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부산시건축사회 정기총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권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와 간담회



영남권건축사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는 1월 29일 김천시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난해 건축사회 회원 50명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품질관리단이 부산시와 대구시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와 주요 건설사고 사례 공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이어 건설공사 참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날 영남권 건축사회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감사패 수여식도 있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영남권 건축사회와 작년 1월께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건설안전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이택준 건축사, 화재복구 성금 2,000만 원 기부



충청남도건축사회 이택준 건축사(주.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는 3월 4일 충청남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남도지회(충남 사랑의 열매)와 손잡고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으로 써달라며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충청남도 김태홍 도지사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지역건축사회, 대만 워크숍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은평구지역건축사회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대만 워크숍을 다녀왔다. 타이베이 101타워를 시작으로 지우펀 마을과 스피, 단수이를 거쳐 용산사까지, 대만의 다양한 건축물을 둘러보며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여수지역건축사회,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건의안 시의회 통과

전라남도건축사회 여수지역건축사회는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는 여수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제23회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건축사회 건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 논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관련기준에 따라 법적요율이 적절하게 적용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지자체 간담회 ▲광역지자체 건의 ▲지방의회 건의 ▲지자체에 건의 ▲비용추계 ▲건축심의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여수시의회에 상정됐으며, 2월 23일 제23회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 업무대행 수수료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집출판팀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No.1 디지털 갈리 프로세스
전국 3,000 건축사 사용중 !!
구독상담 02 3462 1336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march@donga.com



'중꺾마'도 울고 갈 꾸중과 칭찬

과거 한국은 '꾸중의 나라'였다. 필자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께 "아이가 잘못하면 '매우' 때려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직장에서도 무수히 많은 꾸중과 참혹한 질책을 들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서구사회는 '칭찬의 나라'라고 부를 만 하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 보다 강점을 살리는 게 훨씬 좋다는 '강점탐구 (appreciative inquiry)'가 주목받은 것도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실제 영어 단어에는 칭찬과 관련한 표현이 무수히 많다. Excellent! Fantastic! Great! Wonderful! Phenomenal! Outstanding! Impressive! Superb! Very Good! Awesome! Extraordinary! Top-Notch! Brilliant! Remarkable.....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의 동기부여 수단을 대표하는 꾸중과 칭찬 가운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김영훈 교수는 경영 전문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기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깔끔한 정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신혼 초 아내가 3시간 넘게 요리해서 내놓은 김치찌개의 맛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실존적 고민을 했다고 한다. 실제 김치찌개는 평생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 자체가 없는 맛이었는데 대답하기까지 3초 동안 뇌를 풀가동했고 결국 엄청 맛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칭찬과 꾸중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김 교수의 20년 연구로 이어졌다고 한다."

김 교수는 '꾸중 vs 칭찬'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대표적인 실험을 소개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수학 시험을 보게 한 다음, 한 그룹에는 칭찬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꾸중을 했다. 이후 수학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시험을 못 본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더 낮아졌다. 즉, 서구식 사고 기반의 과장된 칭찬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반대로 꾸중을 들은 사람의 성적은 더 좋아졌다.

그렇다고 한국식 꾸중이 무조건 통한 것도 아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꾸중을 들었을 때 두 번째 시험 성적이 더 낮아졌다.

비현실적인 꾸중이 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이후 시험에서 성적이 더 높아졌다.

한국의 전통 문화, 서구의 문화 모두 항상 옳지 않다는 결론이다. 비현실적 칭찬, 과도한 꾸중 모두 위험하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서구 문화의 영향, 곧 대 취급 등으로 정당한 꾸중조차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김 교수는 "정당하지 않은 칭찬은 사람의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동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과장된 칭찬은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며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어설픈 이기심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꾸중이든 칭찬이든 모두 정당해야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서구의 대표적 동기부여 수단 '칭찬'
- 비현실적 칭찬은 도움 안 돼
- 반대로 모든 꾸중이 나쁜 건 아냐
- 중요한 것은 정당한 꾸중이나 칭찬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언덕, 거제도



바람의 언덕 전경.

사진=김진섭 건축사

바람의 언덕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자리한 언덕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이다. 랜드마크인 풍차와 목가적인 언덕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곳으로 이름대로 주변보다는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편이다.

바람의 언덕으로 불려지다

이곳의 원래 지명은 '따가 댕힌 언덕'이라는 뜻으로 '따발늘'로 불렸으나, 2002년부터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해안가에서 자라는 사초과의 야생식물인 따가 언덕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TV 드라마와 예능이 촬영되었던 곳이며 한 때 네티즌이 뽑은 '가고 싶은 여행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거제 8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며, 인근에 신선대와 거제 해금강이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거제의 대표 필수 관광코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새벽에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장엄하고 아름답다. 바람의 언덕은 잔디가 깔린 민둥 언덕이다. 언덕의 중앙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얽힌 사연은 이렇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 학동마을은 여양 진씨의 세력이 컸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 여양 진씨들은 크고 작은 관직에 종사하며 가문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창시켜 나갔다. 그중 여양 진씨 가문의 22세손인 진종기 통정대부는 가문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돌보았다. 통정대부의 부인인 숙부인 완산 이씨 역시 현숙한 여인으로 지아비를 섬기고 가솔을 거느리는 여진 사람이었다. 이들 부부는 살아생전 보기 드문 한 쌍의 원앙이었다. 세월이 흘러 통정대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부인은 어느 날 우연히 꿈을 꾸었다. 부인의 꿈속에서 백발의 한 노인이 부인에게 지금의 바람의 언덕을 가리키며 '나는 저곳에 살게 되리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인은 죽기 전 노인의 예언대로 지금의 바람의 언덕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바람 부는 언덕의 외로운 무덤은 바로 그 부인의 무덤이었다. 남편은 집안의 관례대로 학동 바우산소에 있으니 묘하게도 바람의 언덕과는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는 셈이다. 진씨 부부는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시도 서로를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도장포 마을

바람의 언덕은 오가는 길에 따라 서로 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해금강 박물관 앞에서 바람의 언덕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방법과 차를 유람선 터미널주차장에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장포마을을 왼쪽 아래에 두고 뒷길로, 즉 동백숲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 더욱 운치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동백숲 방향으로 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노라면 저만치에는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 바람의 언덕이 있다. 도장포마을은 96가구 220명이 살고 있는데 멸치, 자연산 돌멩게, 송어가 특산물이다. 갈곶리 갈개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학동만의 안 바다로, 파도가 잔잔해서 대한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이 쉬어가기도 했다. 옛날 원나라와 일본 등으로 무역하는 도자기 배의 창고가 있었다 하여 '도장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이 마을은 어느 어촌 포구의 모습과 다르게, 아름다운 색채로 단장돼 있다. 거제시가 2015년 10월부터 남부면 도장포마을에 '해안 경관 색채시범사업'을 추진해 2016년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도장포마을의 유래인 도자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포토존도 만들어 놓았다. 특히 다양한 타일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는 기존 벽화가 변색이 되는 점을 고려해 타일을 사용해 작품성을 한 층 높이고 색감을 생생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점회기가 가능한 코스이며 바람의 언덕과 더불어 각광받는 명소이다. 바람의 언덕에는 네덜란드 풍차를 연상시키는 풍차 하나가 서 있으며, 언덕에 가까이 갈수록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영국에 황량한 폭풍의 언덕이 있다면, 한국에는 아름답고 넉넉한 바람의 언덕이 있다.

출처 : 거제시청

주소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1길 60



바람의 언덕에서 본 일출.

사진=김진섭 건축사

글·사진=김진섭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라온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사위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마크 획득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건축사의 봄(春) 인사

건축과 삶

추동엽 건축사
(주)씨엔에이 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형, 잘 지내고 있죠?
계절은 어느덧 봄이 오고 있어요. 여기 부산은 봄비가 무지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참 경기가 여의찮아 몹시 어렵네요. 건축사로 일해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도 겪어왔지만 요즘 같아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한숨만 나옵니다.
어느덧 학교가 개강에 접어들면서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2학년을 말

아 설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식 같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참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현실을 살피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어요. 우리와 달리 1년이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다니는 아이들인데 5년을 마칠 즈음 건축사사무소의 꿈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분야로 가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아주 안타깝네요. 혹시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는 자책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아쉬움도 있고...
요즘은 동료에게 전화해 일 많이 하고 있다는 안부를 묻기가 어려워요.

건강히 잘 있냐고 물어보다 '좀 어때'하고 물어보면 '왜 이리 힘드냐?'는 반응만 오기 일쑤이죠. 그러면 보태는 말이 '야,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겠냐,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으니 몸 생각하며 잘 버텨라'라고 서로 웃고 말죠. 그리고 보면 참 힘들게 버텨온다 싶기도 해요.
지금 사무실이 있는 동네가 대학을 2개나 끼고 있는 곳이라 코로나 시절에도 장삿집은 빈자리가 없이 늘 잘 운영되던데 요즘은 몹시 어려운지 큰 길가의 1층 가게도 임대료가 붙어있지 오래인데 나가질 않아요. 부동산 경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장사를 하는 가게라도 좀 잘 되고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텐데 싶어 남의 일이지만 안타깝기만 해요.
안부 인사하려다 너무 꾸밈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우리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니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전 요즘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자꾸 몸이 개운하지 못하고, 힘이 달려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조금 힘들기는 해도 운동하는 동안 잡념도 없어지고, 나름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작에 시작했으면 오십견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건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꽃 피는 봄이 오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 지나치다 얼굴도 못 보고 전화 통화한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있을 테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일이 많아 바빠서 얼굴 못 보겠다는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시로 보는 세상

별

- 정진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

- 정진규 시집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중에서/ 문학세계사/ 1990년

성경에는 저 유명한 포도밭 일꾼의 비유가 나온다. 아침부터 일한 자들과 오후가 되어서 농장에 온 일꾼들이나, 다 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먼저 온 일꾼이 불만을 토하자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고 농장 주인은 말한다. 이 땅의 공정과 하늘나라의 공정은 다르다. 천하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되고, 높였던 것들은 반드시 일어 설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를 가리킨다. 변한다.

〈함성호·시인〉

| 발언대 |



이상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트윈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설기술자에 대한 존중없이 건축사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을까?

2년여간 건설사 소속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감리가 아닌, 현장관리자가 되다 보니 책임자급과의 회의와 문서행위보다, 하도급사들의 건설기술

팀장(이른바 십장)들에게 업무를 전달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 필자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건설기술자들과 그들의 '언어'로 관리하는 일이 업무의 중심이었다. 이때 현장관리 선배들의 조언을 듣게 됐는데, '현장 근로자'들과는 적당한(?) 기싸움과 긴장관계는 유지하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라'는 것이다. 매뉴얼화된 제조업과 달리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욕이 시공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연에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었다.
필자가 본 건설기술자들은 항상 공격적이며 분노에 차 있었다. 거친 노동과 선·후·공정, 동시·공정 사이 분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설노동자라고 경시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내가 더 크게 느낀 것은 존중받아야 할 기술자임에도 현장에서도 심리적으로 하대 받고 있다는 점이다. 땀땀하고 자

랑스러워해야 할 기술보유자가 기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흔하게 건설현장을 '노가다 바닥'이라고 통칭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고도로 숙련된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들이다.
현장에 붙어있는 '안전제일'라는 표어가 이미 한국, 중국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지 오래다. 경험이 많은 현장소장들과 건설기술자들은 고품화·다국적화 되었다. 특성화된 건설공정의 축적되고 노련한 기술의 전수는 고사하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오시공과 안전사고에 더욱 조심하고 유의하고 있다.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간접적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건설기술(자)을 경시하고 하대하는 건설현장문화의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전에 우리 건축사들이 건설현장을 대하는 태도와 명칭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알다시피 노가다라는 어원이 '무기술', '막달'이라고들 하지만, 그들이 건축사의 도면과 '디테일'을 구현함에 있어 중요한 기술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건설기술자들을 경시하면서 고급의 건축 '디테일' 구현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노가다로 부르며 하대하는 순간,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소멸되고 단순 막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위상과 건축사의 도면도 저급하게 취급 당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한국 건설현장의 계급화/저급화를 불러오고, 건축사가 속한 건축업계마저도 하대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건설현장과 기술자들을 하대하면서 건축사의 지위와 인식개선을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어리석은 요구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낙타들



몽골의 아르항가이에서 칭헤르로 가는 드넓은 초원에 낙타들이 유유자적 거닐고 있다. 혼자 도도하게 걷고 있는 낙타 겹으로, 두 마리의 낙타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청춘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정답게 걷는다. 살랑살랑 부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낙타들의 산책이 여유롭다. 부럽다. 제법 두꺼운 옷을 입은 내 어깨도 가벼워진다.

정병협 건축사 · 나는 건축사사무소

|| 건축만평 ||

강정삼 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



- 1. 민간대가가 기준 마련
- 2.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및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 3. 1인 건축사업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4.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
- 5. 건축사의 과도한 벌칙조항의 개선
- 6.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 7. 업무실적 신고제도 및 연금 제도 도입

대한건축사협회, 새 회장의 공약대로 되길...

16,6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김재록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도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브릭코 슬림
Bricko SLiM®

Bricko SLiM® 브릭코슬림

www.bricko.co.kr

Factory 1 현대요업(주)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530 Factory 2 청화요업(주)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598
 브릭코 서울전시장 서울 강남구 선릉로 549 에본빌딩 1F

TEL 1644-8934